S&P 500 분기 실적 시즌 모니터 26.10.29

금융 선행, 에너지 깜짝

2026. 10. 29 조재운 AI Engineer. jaeun.jo@daishin.com

1. 발표 진행도

전체 발표 진행률은 종목수 기준 36.4%(183/503), 시가총액 기준 27.7%로 8.7%p 낮다. 미발표 기업군에 초대형주가 몰려 있다는 뜻이다. 정보기술은 진행률 21.3% 대비 시총 기준 7.2%로 격차가 14.1%p에 달하는데, 섹터 비중 자체가 커 Total 레벨 왜곡을 주도하는 핵심 변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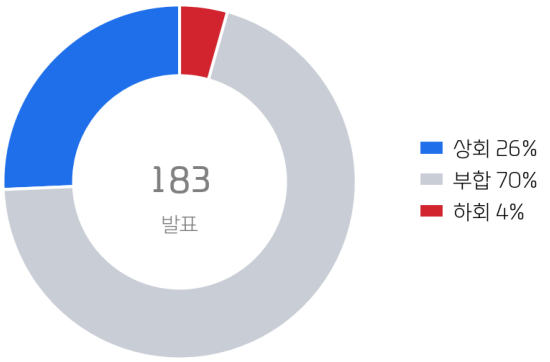
에너지는 진행률 42.9% 대비 시총 22.7%로 격차가 20.2%p에 달해 섹터 내 자체 격차는 가장 크지만, 섹터 규모가 작아 Total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반대로 금융(진행률 60.5%→시총 68.1%)과 부동산(40.0%→53.1%)은 대형주가 먼저 발표를 마쳐 시총 기준 진행률이 오히려 앞서 있고, 지난주도 금융(Visa, AmEx, S&P Global), 산업(GE버노바, 보잉), 정보기술(Amphenol, Seagate) 중심으로 시총 상위 발표가 집중됐다.

표 1 S&P 500 실적 발표 현황

섹터	기업수	발표수	진행%	진행%(시총)	상회%	부합%	하회%
S&P 500	503	183	36.4	27.7	25.7	70.0	4.4
금융	76	46	60.5	68.1	21.7	78.3	0.0
산업	83	43	51.8	54.9	20.9	76.7	2.3
소재	24	11	45.8	50.8	18.2	72.7	9.1
에너지	21	9	42.9	22.7	66.7	33.3	0.0
부동산	30	12	40.0	53.1	16.7	50.0	33.3
일반 소비재	47	13	27.7	29.4	30.8	53.9	15.4
통신 서비스	22	6	27.3	20.6	16.7	83.3	0.0
헬스케어	60	16	26.7	33.1	37.5	62.5	0.0
유틸리티	31	7	22.6	27.1	28.6	71.4	0.0
정보 기술	75	16	21.3	7.2	31.2	68.8	0.0
필수 소비재	34	4	11.8	34.1	0.0	1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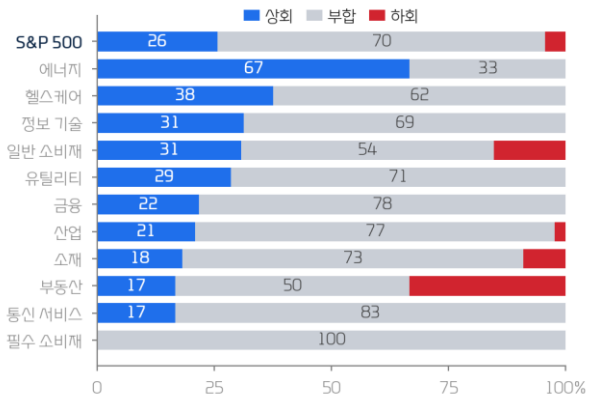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1 실적 발표 결과 분포 (상회·부합·하회)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섹터별 상회·부합·하회 분포 (%, 발표 완료분 기준)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 지난주 주요 발표 기업

금융 3종목(Visa, AmEx, S&P Global)은 모두 컨센서스 부합으로 조용히 지나갔고, 산업(GE버노바 +0.2, 보잉 −0.8)은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보잉은 지난주 발표 종목 중 가장 큰 미스를 기록했고, 부동산 대표주 Welltower(−0.3)도 하회해 부동산 섹터의 약세 흐름을 뒷받침한다.

표 2 지난 주 실적 발표 주요 기업

티커	종목	시총($B)	섹터	발표일	매출 ($B)	발표 EPS ($)	컨센 EPS ($)	EPS 서프 (%)
GEV	GE버노바	233.8	산업	10−28	12.6	$4.81	$3.94	22.2
APH	암페놀	199.6	정보 기술	10−28	10.2	$0.80	$0.72	10.5
V	비자	744.6	금융	10−27	12.1	$3.48	$3.44	1.3
KO	코카콜라	394.6	필수 소비재	10−27	13.4	$0.91	$0.88	3.3
STX	씨게이트	159.9	정보 기술	10−27	4.2	$7.68	$7.42	3.5
BA	보잉	132.5	산업	10−27	24.2	$−0.34	$−0.21	−63.8
SPGI	S&P글로벌	130.3	금융	10−27	3.7	$4.58	$4.43	3.4
VZ	버라이즌	179.0	통신 서비스	10−26	34.3	$1.31	$1.27	2.9
WELL	웰타워	166.7	부동산	10−26	3.7	$0.54	$0.66	−18.0
AXP	아멕스	213.2	금융	10−23	20.1	$4.68	$4.48	4.4

EPS 서프 = 미실현 지분평가손익 등 특이항목 제외 정상화(I/B/E/S) 기준.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개별 종목 실적 발표 결과

티커	기업명	EPS 예상→발표	EPS 서프	매출 서프	발표일 등락
GEV	GE 베르노바	$4.01 → $4.81	+20.0%	+5.4%	−1.9%
TMUS	티모바일	$2.89 → $3.22	+11.5%	+1.9%	–
MSFT	마이크로소프트	$4.71 → $4.89	+3.8%	+1.8%	–
GOOGL	알파벳	$3.03 → $2.12	−30.0%	−0.3%	–

종목별 코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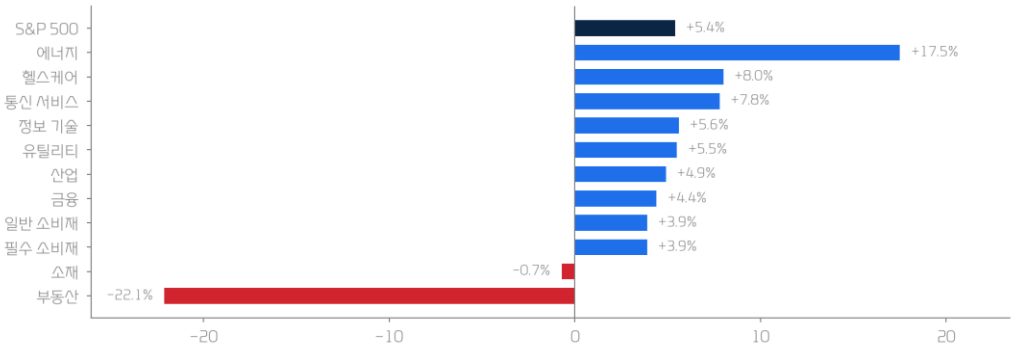
티커	기업명	코멘트
GEV	GE 베르노바	GE 베르노바는 매출 126억4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 4.81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고, 2026 회계연도(FY26) 가이던스의 세 가지 지표를 동시에 상향하며 자유현금흐름(FCF)도 160억~170억 달러로 제시했다. 10분기 연속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4분기 마진 실행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TMUS	티모바일	티모바일은 주당순이익(EPS) 3.22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11.4% 웃돌며 8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계정당 평균 매출(ARPA)은 4% 늘었다. 순증 가입자는 27만4000명, 해지율은 1.09%로 둔화됐지만, 향후 12개월 예상 주가수익비율(NTM PER)이 10.9배인데도 주가는 연초 이후 27.7% 하락한 상태다.
MSFT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매출이 48% 늘고 클라우드 매출은 639억 달러로 성장세가 가속화됐으며, 영업이익률은 49.8%로 8분기 만에 가장 높은 운영 효율성을 보였다. 오픈AI와의 상업적 거래 매출이 1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도 처음 공개됐다.
GOOGL	알파벳	알파벳은 클라우드 매출이 103% 급증한 반면 검색 매출 성장률은 17%에서 12%로 둔화됐고, 영업이익은 406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약 6% 밑돌았다. 자유현금흐름(FCF)은 마이너스 91억 달러, 부채는 1,251억 달러로 집계되며 전반적인 평가가 중립으로 하향됐다.

3. 섹터별 실적 현황 (발표분)

발표완료분 기준 Total 매출은 컨센대비 +2.2%, 순이익 +5.4%로 선방했으나 영업이익은 −12.3% 미스로 영업단에서 구조적으로 밀렸다. 에너지는 매출 서프라이즈 +14.0%(전 섹터 최고)와 순이익 YoY +166.5%의 베이스효과가 두드러지지만 영업이익은 −27.1%로 질적으로 엇갈리고, 부동산은 순이익 컨센대비 −22.1%, YoY −4.7%로 유일하게 역성장했다.

다만 서프라이즈 상위 10종목의 시총 합은 발표완료분 전체의 3.0%에 불과해, 순이익 서프라이즈는 소수 대형주가 견인한 구조가 아니라 중소형주 중심으로 분산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섹터별 컨센서스 대비 순이익 (% · 발표분만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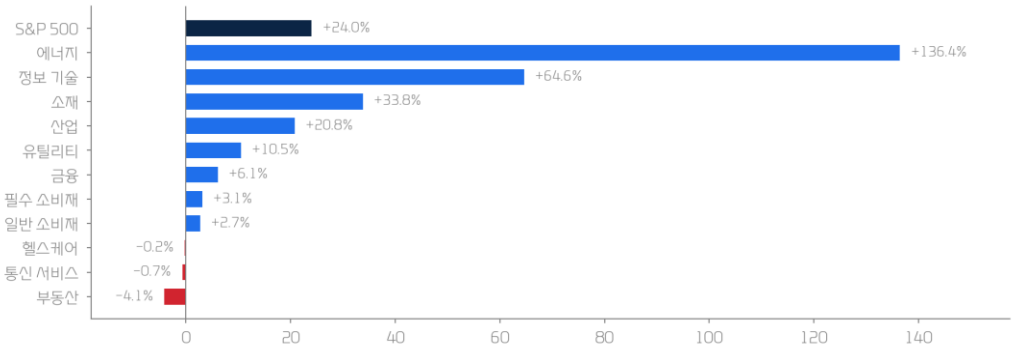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4. 시즌 예상 (Blended)

미발표분을 컨센서스로 채운 블렌디드 Total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는 +1.2%로, 발표완료분의 −12.3% 미스와 정반대 방향이다. 이는 현재까지의 영업이익 미스가 전체 평균이 아니라 헬스케어(−41.1%), 소재(−50.4%), 유틸리티(−57.4%) 등 일부 섹터에 집중된 결과임을 보여준다. 부동산은 블렌디드에서도 순이익 −11.8%로 여전히 음수라, 섹터 전반의 약세가 발표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구조다.

그림 4 섹터별 전년동기 대비 순이익 (% · blen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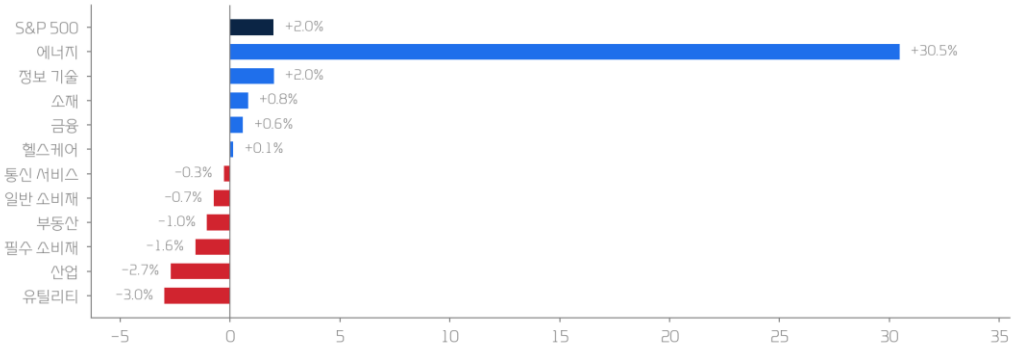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5. FQ1 컨센서스 30일 변화

에너지는 FQ1 컨센서스가 한 달간 매출+8.9%, 영업이익+34.1%, 순이익+30.5%로 전 섹터 중 가장 크게 상향됐다. 반면 산업(순이익 −2.7%)과 유틸리티(−3.0%)는 하향 조정되며 Total +2.0%와 대조적인 흐름을 보인다.

그림 5 섹터별 FQ1 순이익 컨센서스 30일 변화율 (% · GICS Level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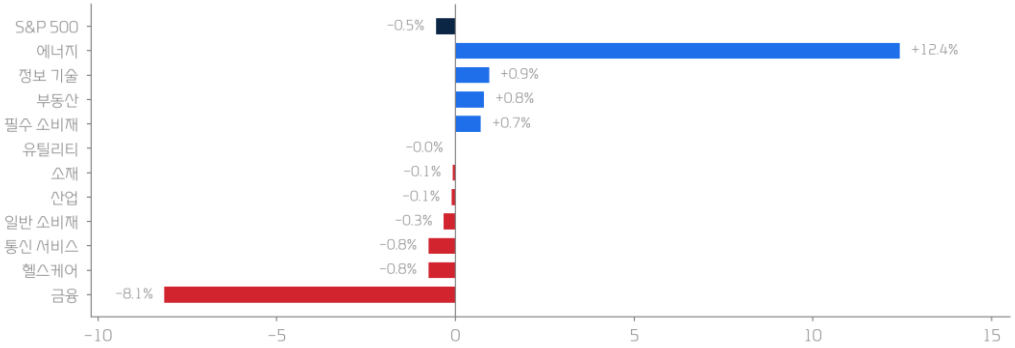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6. FY1 컨센서스 30일 변화

FY1에서도 에너지(순이익+12.4%)가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향을 유지한 반면, 금융은 매출(+0.7%) · 영업이익(+0.3%)이 안정적인데도 순이익 전망만 −8.1%로 급락해 다른 섹터와 괴리된 조정을 보였다.

그림 6 섹터별 FY1 순이익 컨센서스 30일 변화율 (% · GICS Level 1)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다음 발표 예정

발표일	티커	기업명	섹터	지난분기 EPS	이번 컨센 EPS
10/29	MO	알트리아 그룹	필수소비재	$1.48	**$1.51**
10/29	LLY	일라이 릴리	헬스케어	$8.38	**$6.49**
10/29	LIN	린데	소재	$4.50	**$4.52**
10/29	BMY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헬스케어	$2.04	**$1.20**
10/29	MA	마스터카드	금융	$5.04	**$5.16**
10/29	TT	트레인 테크놀로지스	산업	$4.31	**$4.73**
10/29	CAT	캐터필러	산업	$8.17	**$7.08**
10/29	MRK	머크	헬스케어	$−0.13	**$2.08**
10/30	SNDK	샌디스크	정보 기술	$39.25	**$46.22**
10/30	CVX	셰브론	에너지	$6.06	**$4.88**
10/30	GILD	길리어드 사이언스	헬스케어	$−6.75	**$2.19**
10/30	INTC	인텔	정보 기술	$0.42	**$0.39**
10/30	ABBV	애브비	헬스케어	$3.65	**$3.75**
10/30	XOM	엑손모빌	에너지	$3.52	**$4.08**
10/30	GD	제너럴 다이내믹스	산업	$4.24	**$4.13**
10/30	AMZN	아마존	임의소비재	$5.75	**$1.96**
10/30	SBUX	스타벅스	임의소비재	$0.85	**$0.72**
10/30	SYK	스트라이커	헬스케어	$3.69	**$3.55**
11/02	MAR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임의소비재	$3.19	**$2.84**
11/03	PFE	화이자	헬스케어	$0.77	**$0.73**
11/03	ETN	이튼	산업	$3.15	**$3.54**
11/03	VRTX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헬스케어	$4.73	**$4.76**
11/03	PLTR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정보 기술	$0.41	**$0.41**
11/03	MPC	마라톤 페트롤리엄	에너지	$17.73	**$24.32**
11/03	AAPL	애플	정보 기술	$2.02	**$1.99**
11/04	BKNG	부킹 홀딩스	임의소비재	$2.54	**$4.50**
11/04	CVS	CVS 헬스	헬스케어	$2.58	**$1.65**
11/04	MCD	맥도날드	임의소비재	$3.38	**$3.38**
11/04	EMR	에머슨 일렉트릭	산업	$1.71	**$1.85**
11/04	ANET	아리스타 네트웍스	정보 기술	$1.02	**$1.08**
11/04	AMGN	앰젠	헬스케어	$6.29	**$5.79**
11/04	AMD	AMD	정보 기술	$1.66	**$1.95**
11/04	UBER	우버 테크놀로지스	산업	$0.81	**$0.96**

발표일	티커	기업명	섹터	지난분기 EPS	이번 컨센 EPS
11/04	**DDOG**	데이터독	정보 기술	$0.65	**$0.65**
11/05	**COP**	코노코필립스	에너지	$3.24	**$2.97**
11/05	**PH**	파커-하니핀	산업	$9.27	**$8.19**
11/05	**MCK**	맥케슨	헬스케어	$9.93	**$10.70**
11/05	**QCOM**	퀄컴	정보 기술	$2.21	**$2.16**
11/05	**SO**	사던컴퍼니	유틸리티	$1.13	**$1.71**
11/05	**DUK**	듀크 에너지	유틸리티	$1.43	**$1.86**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